

# 오미크론 확산·거리두기 강화에 소비 위축

### 한국은행 '호남권 1분기 경제동향 모니터링'

#### 백화점 카드지출 연말보다 16.5% 줄어...화정 아이파크 붐피 영향도

#### 대형마트·수퍼마켓 소비는 회복세...지역민 온라인 지출 7.6% 감소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로 올해 1분기 광주·전남 소비가 전분기보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호남권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광주·전남 거주자들의 백화점 부문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신한·하나카드 국내 결제액 기준)은 61억7900만원으로, 직전 2개월(11~12월) 사용액인 73억9900만원보다 16.5%(-12억2000만원) 감소했다.

대형마트와 수퍼마켓 사용액은 지난 연말 288억6700만원에서 올 들어 289억5400만원으로, 0.3%(8700만원) 소폭 증가했다.

올해 1~2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온라인 사용액은 125억2600만원으로, 직전 기간(135억6000만원)보다 7.6%(-10억3400만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백화점 사용액은 연말 43억 원에서 올 들어 37억9100만원으로, 11.8%(-5억9000만원) 감소했다.

전남 거주자들의 백화점 부문 카드 사용액도 22.9%(30억9900만원-23억8000만원) 줄었다.

한은 측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화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화점 매출 감소의 경우 광주신세계는 점포와 직선거리 200m 떨어진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붐피사고가 지난 1월 발생하면서 교통통제 및 추가 건물 붕괴 우려 등의 영향으로 내방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신세계가 이달 발표한 2021년 사업보고서

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광주지역 3개 백화점 중 46.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 광주 대형마트·수퍼마켓 카드 사용액은 올 들어 150억9000만원으로, 직전 기간(151억8300만원)보다 0.6%(-9300만원) 감소했다. 반면 전남 대형마트·수퍼 사용액은 136억8400만원에서 138억6400만원으로, 1.3%(1억8000만원) 증가했다.

광주 시민들은 올해 들어 온라인 카드 소비를 10.7%(-7억8000만원), 전남 도민들은 4.0%(-2억5400만원) 줄였다.

한편 한은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개월 연속 떨어졌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9.1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전국은 103.2로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 100.0을 기록한 뒤 5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넘겼던 광주·전남 지수는 전달 99.5로 기준치 아래로 떨어진 뒤 이번엔 더 주저앉았다.

100을 넘으면 2003~2020년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단 향후 소비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지출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오른 109를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방역체계 완화 기조가 재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정책 등이 소비심리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전남 도시 가구 600가구(응답 512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 물 들다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봄 정기세일을 앞두고 최대 30% 할인 판매할 여성의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신세계그룹 4월 2일부터

### 쇼핑 행사 '2022 랜더스데이'

신세계그룹은 다음달 2일부터 그룹 18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쇼핑 행사 '2022 랜더스데이'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프리아구단 SSG랜더스 창립 기념으로 이마트에서 시작한 행사로, 올해부터는 그룹 차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신세계그룹은 하반기에 진행하는 '쓱데이' 행사처럼 '랜더스데이'를 그룹의 상반기 대표적인 쇼핑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는 오는 4월1~3일 한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2~3일에는 100여 개의 상품을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등으로 '반값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이마트에서는 최대 1만원 할인 쿠폰을 준다.

SSG닷컴은 다음달 2~8일에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7~12% 할인해주는 쿠폰을 주고, 이마트24는 1~7일에 랜더스맥주 3종 6캔을 9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스타벅스, 지마켓글로벌 등도 쿠폰 제공이나 할인 판매 등으로 행사에 함께한다.

각 계열사 앱에서 '공동쿠폰팩'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SSG랜더스 유니폼, 모자, 신세계상품권, 조선호텔 숙박권 등을 주는 공동경품 이벤트도 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이마트 랜더스데이 행사에는 4일간 200만명이 찾았다"면서 "올해부터는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참가하는 상반기 최대규모 행사로 발전시켜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 스타벅스코리아

### 카페사장협동조합과 상생 협약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상생협약을 맺고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스타벅스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송호섭 대표이사와 권철승 장관,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오영국 위원장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스타벅스는 협약에 따라 카페업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하는 신규 음료 제조 방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판매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음료' 개발도 추진된다. 제조법은 지역 카페업 소상공인들과 공유되며, 원부자재를 (한정수량) 제공하는 등 스타벅스 이용 고객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카페조합은 스타벅스와 협력해 중소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상생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카페업 대·중소 기업 상생 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교류 활동 추진 및 상생 협력 프로그램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타벅스 매장은 이달 현재 광주 60개·전남 25개가 운영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축구 이란에 승리한 날 편의점 맥주 매출 급증

### 맥주 21%·안주류 17% 늘어

### 경기 시작 전 증가율 가장 높아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을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조1위로 올라선 지난 24일 편의점 맥주 매출도 급증했다.

이마트24는 축구 경기가 열린 전날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전 주 같은 요일보다 맥주는 21%, 안주류는 17%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맥주 중에서는 수제맥주 증가율이 2배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올해 동요일 증가율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시간대별로는 경기 시작 전인 오후 7~8시의 맥주 매출 증가율이 36%로 직전 주 같은 시간 대비 가장 높았고, 경기가 끝난 뒤인 밤 10~11시 증가율이 2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속취해소상품 시간대별 매출은 밤 10~11시, 밤 11시~자정 모두 42%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맥주가 가장 잘 팔린 시간대가 오후 8~9시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객들이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함께 즐기기 위해 미리 맥주를 구매해둔 것으로 보인다"며 "밤 10~11시에는 맥주를 추가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이마트, 업무용 차량 160여 대 전기차로 전환

이마트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160여 대의 업무용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환 대상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물류센터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각 점포에 배치돼 각종 물품 구매, 마케팅 판촉,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보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난해 11월 이마트 성수점 업무용 차량 교체를 시작으로, 이날부터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160여 대 차량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이마트의 전기차 전환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경영의 하나로 마련됐다. 환경부 주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K-EV100)'에도 동참한다.

이번 전기차 교체를 통해 연간 1100t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고 매년 새로운 소나무 4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는 전국 118개 점포에서 460여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전기차를 운영하는 고객들이 이마트에서 쇼핑을 즐기면서 전기차 충전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 확대해 친환경 자동차의 허브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지난 2020년 11월 말부터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전기 배송차를 도입했다.

환경부 주관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 (K-EV100)'에도 동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한국토지부동산(주)

## 전원주택 신축

##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 상담문의 010-3733-3933